

곡성, 복지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현장 복지 강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최우수상…전남 유일

촘촘한 지역 인적네트워크 가동…“사람중심복지 실현”

곡성군이 선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밟고 뛴 현장복지 강화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18일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전국 4번째 이자 전남도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에서도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퍼거를 이뤘다.

이번 2관왕 달성을 군이 조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보건과 복지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군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최우수상은 복지 대상자 신청을 기다리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 겪으로 다가가는 현장 중심 복지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 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군은 11개 읍·면의 복지 전달 체계 강화를 위해 촘촘한 지역 인적망을 활용해 복



곡성군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전국 4번째이자 전남도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 사각지대 발굴 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으며, 아울러 1인 취약 가구 증가에 따른 조사를 추진해 고독사 위험에 대한 예방 체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상하반기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상하반기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와 1인 가구 전수 조사와 추진해 고독사 위험에 대한 예방 체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선제적인 발굴 노력의 결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건수가 총 1만8342

건에 달했으며, 이 중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위기가구는 심층 상담을 진행해 고용, 금융, 심리 등 다차원적인 복합 육구를 정확하게 진단해 통합사례관리 연계 건수도 1703건을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신 건강복지센터 등 법정부 전문기관과의 즉각적인 협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이는 서비스 단절 구간을 해소하고 대상자의 근본적인 복합 문제 해결에 집중한 노력이 이번 최우수상 수상의 핵심 동력이 됐다.

이와 함께 군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인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 총량 극대화 노력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겨울 함평은 거리 곳곳이 ‘포토존’ 함평군 학교면은 ‘2025 함평 겨울빛축제’를 맞아 학교면사무소와 학교면 사거리 일원에 겨울빛축제와 연계한 경관 조형물과 포토존을 설치했다. 면민과 방문객들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겨울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학교면 사거리에는 나무 트리 장식을 설치해 어린이에게 밝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사진은 학교면사무소 앞 겨울 포토존에서 방문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제공=함평군

나주, 출산축하꾸러미·다등이 육아용품 지원 확대

출생 가정 체감 지원 강화…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나주시가 출산축하꾸러미 지원과 더불어 둘째아로부터 육아용품 구입비를 제공하는 정책을 확대 시행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생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 지원 정책을 새롭게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

우선 도 사업인 다등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이 기준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기준으로 나주시 출생 순위 비율

기준에 약 32%를 차지하는 둘째아 가정이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등이 육아용품 구입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이 태어난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가 신정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이며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유모차, 신생아 의류, 수유용품 등 필수 육아용품을 도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나주시는 모든 출생 가정에 신생아 필수용품을 제공하는 ‘행복담은 출산 축하꾸러미 배달사업’을 꾸준히 운영해



나주시가 첫째아 출생 가정에 제공하는 ‘행복담은 출산축하꾸러미’.

왔다.

출생아 1인당 약 10만원 상당의 젖병 세트, 신생아 속싸개, 방수요 등 필수한 품목을 가정으로 배송하며 매년 수요 조

시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6년 출생아부

터는 둘째아 이상 가정은 육아용품 구입

비 지원을 받고 구입비 지원 대상이 아닌 첫째아 출생 가정은 기준처럼 출산축하꾸러미를 배송받게 된다.

이는 둘째아 이상 가정의 경우 이미 기본 육아용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선불카드로 필요한 품목을 직접 선택하도록 한 조치로 신청은 주민등록상 소주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남아이통,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둘째 아이까지 지원을 확대해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출생 가정이 체감하는 혜택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나주 실현을 위해 모든 출생 가정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영암스타 50인’ 선발한다
내년 1월 17일까지 모집

(재)영암군민미래교육재단이 지역 청소년·청년의 재능 성장을 지원하는 ‘영암스타 50인’에 참여할 2026년 인재를 내년 1월 7일까지 모집한다.

재단은 2023~2025년 제육 분야 15명, 음악·미술 분야 6명, 학업·기능 분야 14명으로 총 35명의 영암스타를 선발해 지원해 왔고, 올해 15명을 추가 모집해 최종 50명의 지원 체계를 완성한다.

영암스타 50인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학교밖청소년 중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명이 영암군민이어야 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연말 장보기 ‘담양사랑상품권 페이백’ 이용하세요”

골목형 상점가 대상 23~25일 운영…선착순 진행

담양군은 연말 소비 진작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5일 까지 담양읍 중앙로와 담양시장 일원에 서 ‘담양사랑상품권 페이백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담양읍 중앙로 골목형상점가와 담양상설시장, 다미담예술구 등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행사 기간 중 3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상당

의 담양사랑상품권을 즉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환급장소는 해동문화예술촌 1층 세미나실, 담양문화회관로비에서 진행되며, 현장에서 영수증과 카드매출 전표 등 이용증빙자료를 제시하면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환급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준비된 물량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재발행 영수증과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담양군은 행사 기간 중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교환 시간을 운영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철원 군수는 “연말 경기 점체 속에 서도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페이백 행사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

지원단은 11개 읍·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100% 완료해 현장 중심 지원 기반을 확고히 하고, 매월 정기적인 전문 통합사례관리 회의와 반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사업의 질 관리에 집중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이웃을 향한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더불어 군과 11개 읍·면이 협력해 현장을 뛴 노력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단 한 명의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사람 중심의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양서·파충류 허물 만지기 어렵지 않아요”

함평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이색 체험 프로그램 인기

어린이 호기심 자극 “무서운 줄 알았는데 더 궁금해”

‘함평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양서파충류 생태공원에서 어린이와 가족 방문객을 대상으로 ‘뱀 허물 만지기 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생태공원에서는 도마뱀, 거북, 벌 등 다양한 양서·파충류를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생물들의 서식환경과 생태적 특징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어 다른 전시와 차별화된 콘텐츠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 개와 고양이처럼 익숙한 동물 외에도 다양한 동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생명 존중과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며 평소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함평군의 대표 생태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뱀 허물 만지기 체험 프로그램’은 최근 동물보호법 강화와 동물복지 인식 확산으로 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체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면서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대안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함평을 전국적인 생태교육·동물복지 선도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함평=최길균 기자 6263739@

순천, 모바일상품권 특별 할인행사 진행

19~31일 운영…선 할인·후 캐시백 등 10% 혜택

순천시가 연말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일부터 31일까지 ‘모바일 순천사랑상품권 크리스마스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선 할인 5%와 후 캐시백 5%를 더한 총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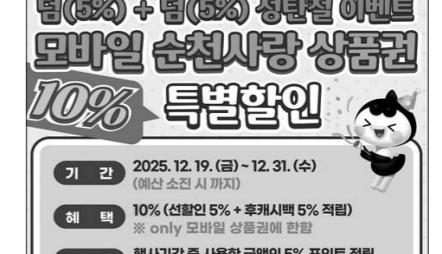
시민들은 모바일 순천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즉시 5% 할인을 받고, 사용 후 추가로 5% 캐시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캐시백 5%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시민들의 빠른 참여가 필요하다.

시는 이번 행사가 크리스마스와 연말 소비 성수기와 맞물려 지역 내 소비를 자극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2000억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통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왔다.

실제 상품권 이용은 대형 유통업체가 아닌 지역 내 가맹점 중심으로 소비가 이



뤄져,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지역 상권에는 따뜻한 활력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지역에서 쓰인 소비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지역사랑상품권이야말로 순천 경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바일 순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왔다. 실제 상품권 이용은 대형 유통업체가 아닌 지역 내 가맹점 중심으로 소비가 이수 있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